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21회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4월 26일, 뚫다! 달린다! 하나된다! 교제와 화합의 장

2025년 4월 26일(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제21회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남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성대히 열렸다. '뚫다! 달린다! 하나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약 3,5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이번 대회는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웃고 뛰는 교제와 화합의 장이었다. 본당 10개 선교구와 교육국,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외국인제자훈련센터,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전 성도는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화평팀으로 나뉘어 선교구 대표들의 깃발 입장과 함께 대회를 힘차게 시작했다. 개회예배는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박기연 장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안경섭 장로(실업인선교회 회장)의 기도, 이화열 권사(여성교회총연합회 회장)의 성경 봉독에 이어 김정석 감독회장이 '서로 격려하십시오'(살전

5:1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광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바리톤 강주호 집사의 애국가 제창과 3선교구 8교구의 심병훈 권사와 공미선 집사가 대표로 대회 선서를 낭독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이창우, 이안수, 박영준, 장대진, 김두원 장로가 소개되었으며 공정성, 질서, 참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경기는 1부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공 전달하기, 박 터뜨리기, 풍선 지퍼, 비전 풍선탑 세우기, 에어봉 릴레이 등 다채로운 경기에 유년부 어린이부터 사랑부,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성도까지 모두가 참여하며 세대 간 장벽을 허물었다. 경기장 곳곳에는 각 팀의 응원 도구가 준비되어 응원전과 팀별 응원가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점심시간에는 성도들이 도시락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보물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2부 경기는 사랑부의 큰 공 굴리기를 시작으로 골 때리는 그녀들, 장애물 릴레이, 바구니 던지기, 119 릴레이, 줄다리기, 계주 경기 등 치열하고 즐거운 경기들로 이어졌다. 성도들의 열기와 환호가 더해지며 체육관은 감동과 웃음으로 넘쳤다. 폐막식에서는 트론 댄스팀 디사이즈잇(This

Is It)의 화려한 공연과 전 성도가 참여한 '레이저 아트쇼'가 무대를 장식했다. 성도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밝히고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을 부르며 은혜의 빛으로 체육관을 수놓았다. 대회 결과는 1등 사랑팀, 2등 소망팀, 3등 화평팀, 4등 믿음팀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7선교구가 '동원상'을 수상했다. 경품 추첨에서는 태블릿PC,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등 풍성한 선물이 제공되어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1979년 제1회로 시작된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는 올해 21회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은혜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 전통은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광림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한혜선 기자

신앙의 전승을 통해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

“...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 명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나이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나 여자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절대로 필요했기에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원치 않는 자녀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죽게 내버려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을 뿐 아니라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고 웃으시며 사랑과 관심을 쏟으신 이유는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어린아이에게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키워야 할까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함께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겸손하고, 순수하고, 신뢰하고, 꿈을 꾸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을 실족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족시킨다는 것은 어린이들



마가복음 10:13~16

13.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의 깨끗한 심령 위에 어른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가르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심령이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실족시키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삶,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양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믿음과 존경으로 본을 따라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이 가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신뢰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육학자에 의하면 교육이란 ‘모방행위’

라고 정의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교육철학이라고 해도 결국은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육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Life style education)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즉, 모든 것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훈계할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힘되고 어려울 때에 붙잡고 일어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네 번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삶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고, 풀어주고,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며,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

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 복된 자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축복의 말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실족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는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꿈을 가지고 계신단다” 등 늘 긍정의 말로, 소망의 말로, 사랑의 말로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복을 간구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돌아와 남은 복이 없다고 울부짖는 에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간구하는 기도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심령 속에 축복과 긍정의 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독회장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은 서로 격려하는 믿음 공동체



러시아 선교회



에티오피아 선교회

광림교회 외국인제자훈련센터(위원장 서명관 장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성도들을 섬기며 각 나라별 선교회가 활성화되도록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돕고 있다.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볼어권 및 에티오피아 4개 권역의 외국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 타국에서 한국에 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지만, 외국인제자훈련센터에는 매주 80명 이상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러시아 선교회

러시아 선교회는 러시아어 예배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따찌아나(Kim Tatyana) 성도를 중심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센터 사무실(실로암 지하 2층)에 10명 이상이 모여 기도하고 친교 시간을 가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은 3차례 광림장학생으로 선발된 유하이 올렉산드르(Yuhai Oleksandr) 학생이 올해 성균관대학교 석박사통합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 올렉산드르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광림장학금 덕분에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제 역량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현재 통신 기술 연구실에서 이비인후과 및 척추 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민 2세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림교회 외국인제자훈련센터에서는 매년 3명 이상의 외국인 이민 2세대들이 광림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선교회

에티오피아 선교회는 매주 외국인제자훈련센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선교회이다. 또한 본국 에티오피아의 결혼 아동들을 후원하는 선행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펼치고 있어 다른 선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전통의상을 입고, 밀레니엄 광장과 교회 주변을 돌며 에티오피아어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각국 언어로 작성된 복음 전도지를 나눠 주며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 마지막에는 웨슬리관 앞에 모여 한국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 5월 4일(주일), 약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관 4층에서 에티오피아 선교회 담당 야비발 센베투(Yabibal Teklu Senbetu) 목사 주례로 신랑 조하네스 케자헤그네 키플레(Yohannes Gezhaegne Kifle)와 신부 다나 사라 쿠마(Dana Sara Kuma)회원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조하네스는 광림 외국인제자훈련센터를 통해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신부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지난 25년 동안 광림교회에서 10차례 이상 외국인 회원들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타국에서 결혼하는 선교회 회원들에게는 기쁨을, 교회를 방문하는 비기독교 외국인 하객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광림교회 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선교회 회원들에게 든든한 힘과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교회학교 어린이주일 행사 'Shining World'가 5월 4일(주일) 예배 후 밀레니엄광장과 사회봉사관 2층에서 열렸다.



여선교회총연합회 5월 월례회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5월 4일(주일) 3부 예배 후에 열렸다.



오병이어 음악회 5월 24일(토) 오후 3시 루체포레에서 국외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오병이어 음악회가 열린다.

감독회장 동정



- 4/28 백석대학교대학원 특강
- 4/29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4/30 감리회세계선교사대회 개최예배
- 5/1 여선교회 전국대회
- 5/2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 5/4 어린이주일 유아세례
- 5/5~9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가정의 달, 사랑의 돌봄 행사

사회사업위원회, 4월 30일 장천홀 입구에서 실시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장재관 장로)는 4월 30일 오전 5시30분부터 장천홀 입구에서 가정의 달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참석한 박범규 목사(1선교구)는 “아침 일찍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가는 사회사업위원회 회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구원의 소망과 함께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기도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행사 날짜를 첫째 주 수요일에서 마지막 주로 바뀐 상황이었지만 1시간 30분 동안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으며 이들에게는 빵, 파스, 양말을 비롯한 여러 선물을 지급했다.

선물의 대부분은 홍보물 사업을 하는 윤정주 권사(3교구)가 후원했다. 윤 권사는 “작은 것일지라도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큰 은혜가 되며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과 감사가 찾아올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지켜 주시고 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장재관 장로는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돌봄행사를 많이 펼쳐 왔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며, 격월로 진행되는 어르신 돌봄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도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 먼저 찾아갈 계획이다. 사랑의 봉사를 함께 하는

회원들과 늘 성원해 주시는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제21회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뛰다! 달린다! 하나된다!

일시 2025. 4. 26(토) 오전 9시 장소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참된 평안을 주는 성경 필사

만년필로 쓴 성경 필사 - 최현우 권사



인 여유가 생겼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 보자는 생각이 성경 필사로 이어졌습니다. 5년 전 시작한 신약 성경 필사가 구약으로 이어졌고 올해 2월 전체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만년필로 필사하는 이유는?

종이에 볼펜을 사용하면 편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볼펜 잉크가 휘발되어 변색하더라고요. 만년필 잉크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 보존되기에 만년필로 필사하게 되었어요.

제 만년필은 대학생 때 아버님께 선물 받은 55년 된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을 사용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님께도 기쁨이 될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만년필로 정성스레 필사하게 되었습니다. 필사지는 빛의 숲 서점에서 판매하는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필사 이후 변화된 삶을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늘 아침마다 '오늘도 손가락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필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써본 날은 12페이지를 써봤는데 손목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필사를 시작한 후부터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제 자신이 스스로 대견하더라고요. 군 제대를 마친 아들에게 성경 필사 제본을 '네 거야!'라며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자녀들도 아내도 성경 필사를 응원해 주며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지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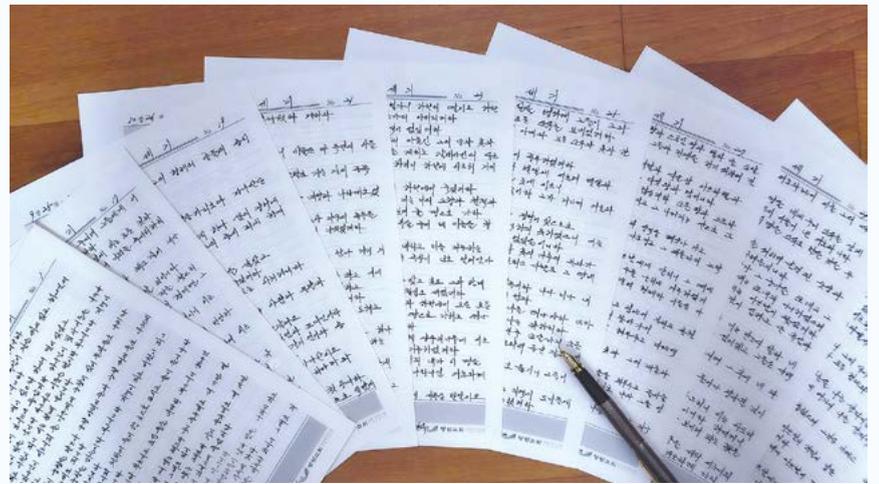
부친이 시편 18편을 좋아하셨고 또 많이 의지하셨는데 그 영향으로 저도 시편 18편 중 1, 2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광림의 성도들이 필사로 얻어지는 평안함과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게 되는 순종의 마음을 경험해 보시길 적극 권면합니다. 제가 힘이 다하는 날까지 성경 필사를 이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성경 필사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박희윤 기자



해마다 많은 광림의 성도가 온라인과 노트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얼마 전 만년필로 전체 성경 필사를 끝낸 최현우 권사(18교구)를 만나 성경 필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남성 성도가 필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필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5대째 신앙을 이어왔지만, 돌이켜보니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하지 못했더라고요. 젊은 시절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일을 하느라 분주했었는데, 근래에 시간적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월 4일 주일, 3부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의 집례로 1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서규진, (부)서정균, (모)김지혜



황나연, (부)황지현, (모)홍정화



문세준, (부)문찬웅, (모)서민정



박선우, (부)박건하, (모)최하명



엄다인, (부)엄장윤, (모)서미란



장희진, (부)장호준, (모)박민혜



이은우, (부)이현성, (모)강민지



마예나, (부)미민하, (모)황진영



허이서, 허에서, (부)허성욱, (모)양지이



김푸름, (부)김도균, (모)김하영



광림복교회

복음의 향기 가득한 꽃꽂이 클래스



4월 27일(주일), 광림복교회는 총력전도주일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꽃꽂이 선교회 주관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복교회 2층 루체포레에서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형형색색의 봄꽃들과

밝은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행사는 전도의 장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클래스에는 성도들과 함께 초청된 새가족, 지역주민 등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

이 함께 했습니다. 복교회에서 꽃꽂이선교회 활동을 하다가, 꽃집을 개업한 김보연 집사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감성과 손길로 꽃을 꽂으며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꽃을 만지며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결과 새가족이 등록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은 “광림복교회의 환대와 따뜻한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돌아간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꽃꽂이선교회 장은혜 집사는 “항상 보이지 않게 강단 장식 봉사만 하다가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 의미있고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꽃을 통한 전도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이번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곳곳에 퍼진 꽃향기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향기가 지역사회 곳곳에 은은히 퍼져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우진 목사(광림복교회)

생애 첫 KLPGA 우승 상금으로 중보기도실 봉헌

동탄광림교회 청년부, 김민주 성도



동탄광림교회 청년부 김민주 성도는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2022년 프로 골퍼로 데뷔 후 첫 우승이 쉽지 않았지만 탄탄한 실력과 겸손한 인성의 김민주 프로는 루키 최초 7개 홀 연속 버디라는 놀라운 기록도 가지고 있다. 주일학교 때는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했으며 태권도 전공자이기도 하다. 이번에 첫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 우승 상금으로 동탄광림교회 중보기도실 리모델링비 전액을 헌금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김민주 성도를 만나 보았다.

프로 데뷔 후 KLPGA 대회 첫 우승 소감과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KLPGA 정규 투어 3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 순간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승의 원동력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 그리고 광림교회와 청년부,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하고, 특별히 IM뱅크 초대 챔피언의 영광을 얻게 되어 더욱 감사하고 기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동안 꾸준히 연습한 것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전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탄광림교회 청년부 소속인데 골프대회 스케줄 관계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청년부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요?
대회 스케줄로 인해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는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경기 중에는 온라인 예배, 가

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청년부 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프대회 우승 상금으로 동탄광림교회 중보기도실 리모델링비 전액을 헌금했는데 어떤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게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룬 첫 우승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중보기도실은 선수로서 제가 훈련하고 성장할 때 ‘많은 기도와 영적 지원을 받았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중보기도실에 쓰임 받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며,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나요?

4대째 이어온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게 됩

을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장로), 할머니(권사), 큰 외삼촌(목사), 작은 외삼촌(장로), 집안 가족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의 자녀로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망과 프로 골프 선수로서 목표는? 첫 우승의 기쁨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는 메이저 대회 우승과 세계 무대 진출을 목표로 하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가 되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전진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희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11



이삭과 리브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연게 할지어다” (창 24:60)

아버지 브두엘의 염려가 있었지만, 리브가는 고향을 떠나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그녀의 유모와 하녀들을 동반하고 엘리에셀을 따라나섰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를 떠나 남쪽 네겟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려고 들에 나간 이삭이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 한 떼가 오고 있었다.

마침 리브가도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고는 낙타에서 내린 후 엘리에셀에게 물었다.

“저기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구인가요?”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의 젊은 주인이자 신랑이 되실 분입니다.” 그의 말에 리브가는 베일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이윽고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될 베일에 싸였던 리브가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엘리에셀은 젊은 주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말하고, 그녀의 용모는 물론 성격도 뛰어난 여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삭은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리브가를 극진히 사랑하였다.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힘들었던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다.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한 후 아브라함은 눈을 감았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린 헛수는 모두 백일흔다섯 해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합장되었다. 이후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

야곱과 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 25:23)

행복한 생활을 하던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털복숭이로 태어나서 이름을 에서(Esau, ‘털이 많다’는 뜻)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Jacop, ‘발 뒤축을 잡음’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에서와 야곱은 여느 쌍둥이와는 달리 닮은 데가 거의 없었다.

형인 에서는 행동은 거칠지만 정직한 젊은이로 자라났다. 그의 팔은 강인하고 말처럼 민첩하였다. 에서는 온종일 산과 들에서 사냥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인 아버지 이삭은 그를 끔찍이 사랑했다.

반면에 동생인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집에서 멀리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한 몸에 잔뜩 받았는데, 그녀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애정을 쏟아 야곱의 버릇을 잘못 들었다. 하지만 몸집



▲ 장자권과 바꾼 팔족_ 팔족을 달라고 하는 에서의 요구에 야곱이 장자권, 즉 집안의 맏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군림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다. 헨드릭 테르브루그렌 작품

이 크고 행동이 거친 에서는 시끄럽게 떠들거나 낙타와 염소 냄새를 풍기면서 마구간의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리브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보다 늦게 태어난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다. 일찍 태어나지 못해 야곱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이삭의 유산이 모두 에서에게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하여 에서를 속이기로 하였다.

먼 곳으로 사냥을 하러 갔던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때 마침 야곱은 부엌에서 팔족을 쏘고 있었다. 이를 본 에서가 야곱에게 부탁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팔족 조금만 먹자.” 그러나 야곱은 형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고, 에서는 다시 부탁했다.

“나 배고프단 말이야. 팔족 한 사발만 줘!” 그제야 야곱은 에서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형은 나에게 뭘 줄 건데?” “무엇이든 내게 줄게.”

“그럼, 나한테 장자의 권리를 모두 줄 수 있겠어?” “물론이지. 팔족 한 사발만 준다면 내 권리를 모두 줄게.”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팔족을 주었고, 에서는 맛있게 먹었다. 에서는 단순히 배가 고프는 순간에 팔족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 야곱이 말하는 뒷생각은 하지 못했다.

야곱은 이 일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이삭에게서 형식을 갖춰 승인을 받아내기만 하

면 되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왔다. 이때 이삭은 사막의 유목민들 사이에는 흔한 질병인 시력 상실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마르레 평원 지대에 가뭄은 계속되었고, 이삭 일행은 양 떼를 이끌고 필리스티아(블레셋) 중심부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삭 일행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세대 전에 브엘세바 황야에 파놓았던 우물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해 이삭 일행의 이동은 몹시 고되었고, 심신이 지친 이삭은 헤브론 땅이 그리워졌다. 그래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삭은 앞으로 자신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삶을 마감하기 위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불러 숲에서 사슴을 잡아와 평소에 자신이 즐겨 먹는 구이 요리를 해오라고 했다. 그러면 그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 모든 재산을 물려줄 심산이었다.

*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리브가를 만나는 이삭_하나님의 섭리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졌다. 모나르 주즈프 작품

